

‘걷기’ 의미 탐색하는 이색 전시 열린다

ACC ‘걷기, 헤매기’ 27일~9월3일
한국·벨기에·세르비아·과테말라 등
6개국 현대미술가 13팀 참여
전시 연계 세미나·워크숍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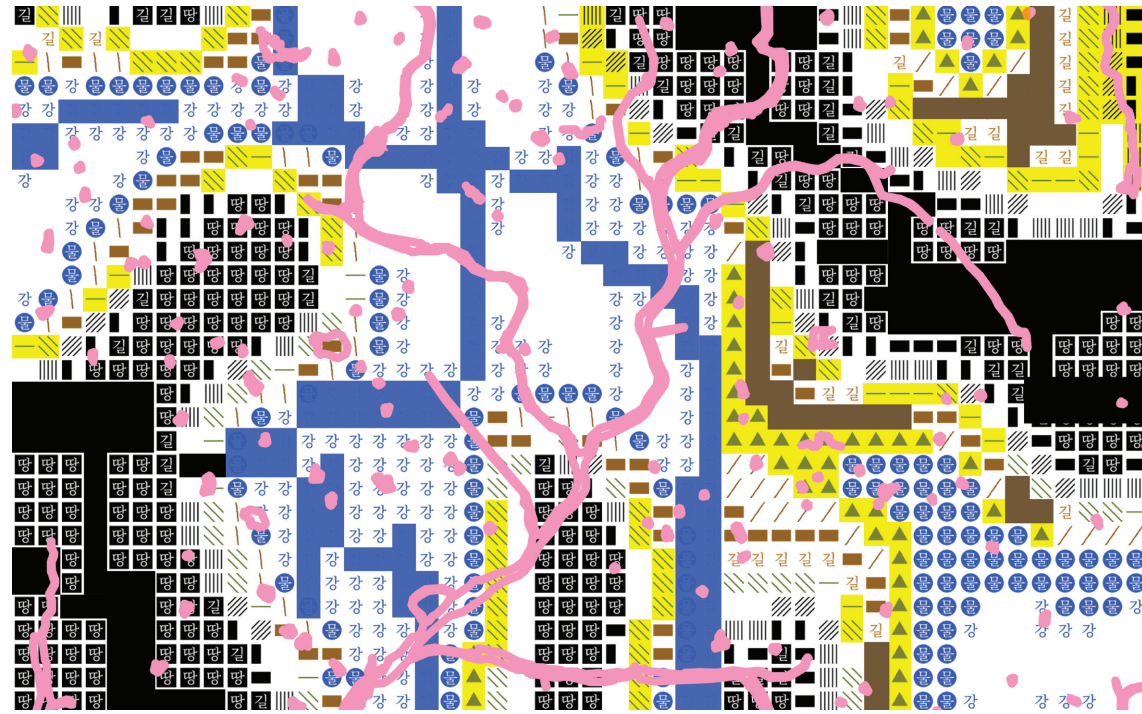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맞물리면서 걷기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다. 걷기는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가벼운 차림으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점심시간 짬을 내 걷기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주말들도 집안일을 마치고 삼삼오오 마실을 돌듯 동네를 걷는 이들도 있다. 걷기라는 행위를 매개로 의미를 탐색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에서 열리는 ‘걷기, 헤매기’가 그것. ACC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복합전시 3, 4관에서 ‘발견하는 걸음, 확장하는 시선’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을 비롯해 벨기에,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홍콩 등 6개국 현대미술가 13(팀)이 참여한다. 특히 전시는 다양한 걷기의 양상은 물론 보행자 이야기, 길 위에서 만난 도시의 역사와 오늘의 풍경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와 연계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마련돼 있어 사회적 문화적 관점으로 걷기의 의미를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해외 유명 작가의 작



박고은 작 ‘길자를 입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 (ACC 제공)

품들도 볼 수 있다. 장르 또한 회화와 조각은 물론 사진과 영상, 키네틱 예술(동작예술), 인터랙티브 아트(상호작용예술) 등 다채롭다.

눈에 띄는 작품 가운데 하나는 마리나 세르비아의 아브라모비치의 작품.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퍼포먼스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작가는 작품 ‘연인, 만리장성 걷기’를 선보인다.

작가는 연인 울라이와 90일간 만리장성 양 끝에서부터 걸어 중앙의 지점에서 만나 이후 각자 방향대로 헤어진다. 이 퍼포먼스는 거대한 우주 속에 각자 여정을 홀로 걷고 있는 이들의 삶이 바로 삶의 본질이라는 의미를 던진다.

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기억을 소리를 통해 추적하는 작품도 있다. 미라 리즈키 쿠르니아는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에 관심을 갖고 그것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기억과 지각의 문제를 탐구한다. 그의 작품 ‘발자취를 쫓다’는 1980년 광주의 오일과 1998년 5월 인종차별로 벌어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폭동의 역사적 기억을 모티브로 한다.

작가는 자카르타와 광주 두 도시를 걸으며 발견한 소리를 채집하고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겪은 이들의 목소리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사운드스케이프에서 자카르타의 소리로 광주의 이야기를, 광주의 소리로 자카르타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벨기에 국가관 대표 작가인 프란시스 알리스는 회화 연작과 퍼포먼스 영상을 선보인다. ‘국경 장벽 유형학’과 ‘실천의 모순 5’가 그것. 각각 장벽을 기록한 ‘국경 장벽 유형학’은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삼팔선이 담겨 있어 남다른 의미를 발한다.

광주의 길 이야기를 담은 체험형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박고는 작가의 상호 작용 작품 ‘길자를 입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는 광주의 옛길 이름이 담긴 지도 위를 유영하는 체험이다. 강동주 작가의 ‘유동, 아주 밝고 아주 어두운’은 한강의 유속에 관한 드로잉을 표현한 것으로 개발의 역사 뒤면에서 회복과 저항의 토대로 존재해왔던 강의 흐름을 주목한다.

공장이 남긴 흔적을 추적하며 달리는 김재민이의 ‘레이온 공장 달리기’도 이색적이다. 작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공장의 자취를 들여다 본다. 공업지대의 이동을 중심으로 현대 도시의 탄생을 비롯해 팽창, 소비 사회를 살펴본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퍼포먼스도 마련돼 있다. ‘제1회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에 빛나는 레지나 호세 갈린도는 신작 퍼포먼스 ‘땅은 땅자를 감추지 않는다’ (5월 14일)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친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작가의 황금사자상 수상작 ‘누가 그 흔적을 지울 수 있을까?’와 근작 ‘사람들의 강’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세미나와 워크숍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김재민이와 미라 리즈키 쿠르니아가 오는 27일 ‘아시아문화연구 학술세미나’에서 작품제작과 관련된 연구물을 발표한다. 새로운 질서 그 후의 워크숍 ‘둘러보기’ (6월 23~25일), ‘제2회 방직공장 달리기(광주편·9월 2일)’는 또 다른 걷기 경험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걷기의 의미를 돌아보며 변화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봄날 걷기의 미학을 누리고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리나아브라모비치 작 ‘연인 만리장성 걷기’

우암문화재단 저서 3권 발간

‘나라 사랑과 직업...’ ‘인간 사랑과 협동...’ ‘역사에서 길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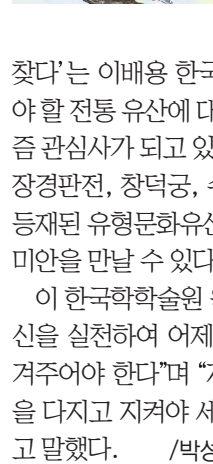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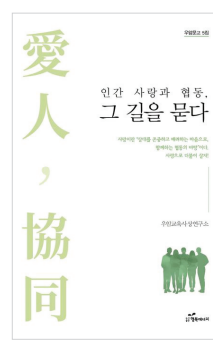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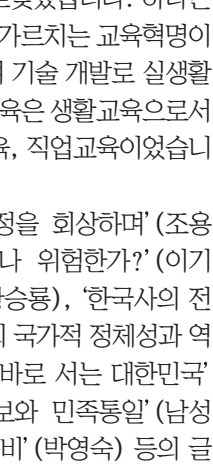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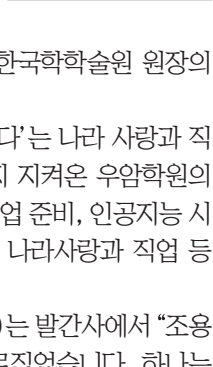
올해로 창학 73주년을 맞는 우암학원(설립자 학원장 조용기)이 설립한 우암문화재단이 모두 세 권의 책을 발간했다.

우암 조용기 선생을 비롯해 학계 등 모두 14명의 저자가 쓴 ‘나라 사랑과 직업, 그 길을 묻다’, 우암 조용기 선생 등 13명이 저자로 참여한 ‘인간 사랑과 협동, 그 길을 묻다’, 우암문고 4집으로 발간된 이배용 한국학학술원 원장의 ‘역사에서 길을 찾다’가 그것.

‘나라 사랑과 직업, 그 길을 묻다’는 나라 사랑과 직업교육을 견학이념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우암학원의 역사 등을 비롯해 미래 교육과 직업 준비, 인공지능 시대 일과 직업, 우암의 직업교육, 나라사랑과 직업 등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담고 있다.

황승룡 박사(우암학원 이사장)는 발간사에서 “조용기 박사님은 두 가지 혁명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는 공부할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혁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을 통하여 기술 개발로 실생활을 바꾸자는 혁명입니다. 그의 교육은 생활교육으로서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산교육, 직업교육이었습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책에는 ‘우암학원의 설립 과정을 회상하며’ (조용기), ‘우리나라는 자진에 얼마나 위험한가?’ (이기화), ‘나라 사랑의 길을 묻다’ (황승룡), ‘한국사의 전쟁과 평화’ (김경록),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성’ (이명희), ‘바다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 (홍승룡),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민족통일’ (남성욱), ‘미래 교육, 직업에 대한 준비’ (박영숙) 등의 글



이 실려 있다. 다른 책 ‘인간 사랑과 협동, 그 길을 묻다’는 우암 선생을 비롯해 황승룡 우암학원 이사장, 우동기 전 영남대 총장 등 모두 13명의 글이 실려 있다.

특히 우암 선생은 ‘사랑(愛): 자기 믿음, 관심, 배려’라는 글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관심에서 비롯되어 이중고리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 ‘역사에서 길을 찾다’는 이배용 한국학학술원 원장의 우리가 꼭 살려야 할 전통 유산에 대한 단상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요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수원화성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저자의 관점과 문화적 심미안을 만날 수 있다.

이 한국학학술원 원장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실천하여 여제를 담아 오늘을 다지고 내일에 넘겨주어야 한다”며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문화의 초석을 다지고 지켜야 세계인에게 자랑으로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주제확장토크’

26일 고려인 주제 김병학 강연

제)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전시 기간 중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공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제확장토크’를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회에서 개최한다.

‘주제확장토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께?’(soft and weak like water)’가 다루고 있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확장된 담론을 논의하는 자리다.

첫 번째 마련된 4월의 ‘주제확장토크’에서는 디아스포라, 이주 등에 대한 담론을 강연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26일 오후 3시 ‘고려인 이주사와 문화예술’을 주제로 김병학 고려인문화관 관장이 고려인 문화예술사, 특히 고려극장과 고려일보를 중심으로 전개된 고려인들의 문화예술과 역사에 족적을 남긴 화가들의 삶을 들려준다.

김병학 관장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며 현지에서 한글학교 교사, 재소 고려인 사회의 모국어인문 ‘고려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그가 수집한 고려인 문화자료와 관련 역사 유물을 바탕으로 2019년 고려인문화관이 문을 열었다.

오는 7월 9일까지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정신, 전통문화, 디아스포라, 생태와 환경 등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병학

빈 필하모닉 연주 스크린으로 만나요

6월17일까지 CGV 광주 터미널점서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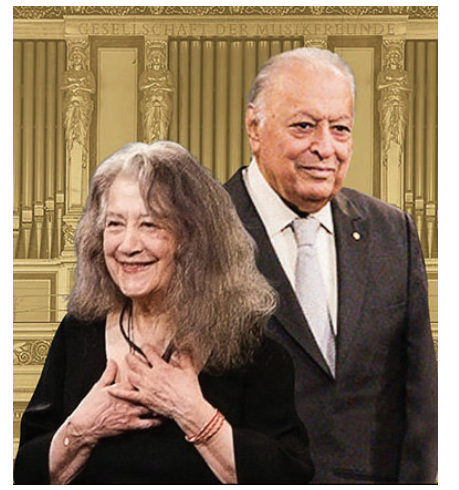
영화관에서 만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GV가 세계 3대 교향악단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를 오는 6월 17일까지 광주 터미널점에서 상영한다. 세계 정상급 지휘자 4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오는 29일까지는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와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 두 거장의 가장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과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 로만틱’을 감상할 수 있다.

5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보스턴 심포니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음악 감독을 역임한 안드리스 넬슨스의 말러 ‘교향곡 7번’을 만날 수 있다.

5월 17일부터 27일까지는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상임악과를 맡고 있는 독일 대표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등장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과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교향시 ‘알프스 교향곡’이다.



마르타 아르헤리치(왼쪽)와 주빈 메타

마지막으로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세계 최고령 지휘자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협연을 선보인다. 베토벤, 멘델스존의 곡과 더불어 세계 3대 협주곡으로 손꼽히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와 닐센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옛 담장에서 길을 묻다

이동호 사진전, 5월 31일까지 갤러리카페 ‘사잇길’



아름다운 옛 담장의 모습을 앵글에 담은 전시회가 열린다.

이동호 사진전 ‘담장에서 길을 묻다’가 오는 5월 31일까지 광주공원 인근 갤러리 카페 ‘사잇길’에서 열린다. ‘사진’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전국의 오래된 담장을 담은 사진으로, 주로 4월과 5월의 싱그러움 풍경을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전시에서는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경남 산청 남사에담촌, 완도 청산도, 강원 병영마을, 강원 백운동 정원과 나주 남파교

백의 담장 등 15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 관계자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옛 담장은 골목을 찾는 사람들에게 수백 년 동안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며 “작가의 작품은 암묵적인 담장의 존재를 고집어내 세상에 드러내 보인다”고 말한다.

갤러리카페 ‘사잇길’은 문화공간을 겸한 한옥카페로 전시공간을 작가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일요일 휴관. 오전 10시~밤 9시. 문의 062-675-427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낭만의 향기’ 한국화 매력 만끽

향목회 합동 회원전, 5월9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윤순근 작 ‘향촌’

향목회(회장 이호준) 합동 회원전이 오는 5월9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전시장에서 열린다.

‘낭만의 향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된다.

‘향목회’는 광주대와 동강대에서 행당 박인주 화백의 지도를 받은 회원들이 결성한 모임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꾸준한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한태희·최서연·최운업·조지은·윤순근·이기욱·이호준·임정례·임종배·임희태·선정미·선철규·박근배·박철심·배미라 작가가 참여했다.

회원들은 고즈넉한 마을 풍경, 아름다운 남도의 풍광을 담은 작품 등을 전시한다. 전시에서는 화사함이 돋보이는 박인주 화백의 작품 ‘희망’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